

2018년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건축물과 제2차 (速記録)

- 주관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 일시 : 2018. 2. 22. (목) 10:39 ~ 11:47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61길 10, 센터프라자 808호

Tel) 02-537-0889 Fax) 02-738-0123



2018년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제2차

◆ 일시 : 2018. 2. 22.(목) 10:39 ~ 11:47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 참석자 (8명)

위원장 : 김정신

위 원 : 윤인석, 홍성걸, 전봉희, 박기화, 조정식, 김왕직, 이재인

배석자 : 박용헌 팀장, 이석현 주무관

※불참위원 : 홍석주, 우동선

◆ 회의안건 : 총 2건(심의 1건, 자문 1건)

1.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심의(1)

- [삼청동 오위동 김춘영 가옥] 외 3. 남산골 한옥마을 연결로 설치

2. 자문(1)

- 시 기념물 제28호 [도봉서원과 각석군] 추가 발굴조사관련 현상변경에 대한 자문

(개회)

○ 000 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이 적기 때문에 충분한 토의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1시간 정도면 되겠죠? 남산골한옥마을은 파악을 다 하시고 다 가봤을 테니까. 설명 들을 필요 있을까요? 그래도 일단 오셨으니까.

(용역관계자 등 3명 입장)

○ 용역관계자

안녕하십니까. 일단 개괄적으로 이 사업의 목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이 있는데 정문과 후문이 있고요. 최근에 승강기를 설치했습니다.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222/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장애인 통행 때문에 설치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정문과 후문을 빼면, 사실 후문에서도 그렇게 많은 통행이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배치가 돼서 필동 주민들이 이쪽을 통행하기가 원활하지 않다는 의견 때문에 계단이나 이 위치로 해서 연결하면 조금 더 이쪽 서측 주민들하고 시내 쪽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위치를 보자면요 여기에 김춘영 가옥이라고 한옥가옥 5채를 옮겨 놓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여기서 멀지는 않은 곳인데요. 여기에 문화재가 있고요. 설치 위치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쪽 나오게 되면 여기가 동대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사업의 취지이고요. 기존 출입구 부족 때문에 주민생활 불편과 기왕이면 주민들이 공원으로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 있으면 분위기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황입니다. 이 지반에서 이쪽 한옥마을까지는 6m 정도 보가 있어서 이것을 계단이란 다른 교통수단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맨 처음 초기 (안)인데요. 한옥마을 문화재 쪽으로 해서 땅을 파서 하는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은 석축도 해체되고 여러 가지 토목 쪽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 (안)은,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석축은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초기 (안)이고요. 결국은 저희가 쓸 수 있는 폭이 이 석축서부터 3m 정도밖에 안 돼서 크거나 장식이 있는 그런 계단은 설치하기가 힘들어서요, 결국은 원형계단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게 사유재산인데요. 이 건물주가 주차장으로 쓰던 위치라서 주차장을 이쪽으로 옮기고요. 그리고 계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옥마을 이 위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평면이고요.

그리고 전에 심의할 때 나왔던 내용이 화재발생 등 위험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가 CCTV도 많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금연구역이라 한옥마을 전체 내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되어 있거든요. 원칙적이긴 하지 만요. 그리고 유동인구가 적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쪽으로 가 보시면 동네 사람들 산책로입니다. 여기까지는 중국 관광객들이 오는 통로는 아니고요. 주로 밑에서 이루어지고요. 여기는 동네 분들 해가지고 아침이랑 저녁만 꽤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지금 있는 철골구조물은 뭐예요?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222/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용역관계자

그 철골구조물은 전, 이게 사유지인데요. 전에 지금의 건축주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다가 중간에 그만둔 자국입니다.

○ 000 위원장

그만뒀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 용역관계자

철골은 있습니다. 이제 철거를 해야죠.

○ 000 위원장

해야 됩니까? 근데 왜 빨리 철거 안 하고 지금 계속 그 상태죠?

○ 용역관계자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바로 철거를...

○ 000 위원장

이 사업하고 철골구조 철거하는 것과고는 관계없잖아요.

○ 용역관계자

글쎄요, 제가 사유재산이라 뭐라 말하기는...

○ 000 위원장

사유재산이긴 하지만 가보니까 보기도 흉할 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철골구조물을 존치하고 있다는 게. 저는 중구에서 그 관리를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사유 땅이지만.

○ 담당 팀장(중구청)

담당 팀장인데요.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기존 백상빌딩에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철골로 했다가 주차장이 다른 대체공간이 나와서 건축주가 구청에 양해각서를 해줬어요. '내 부지를 스스로 저 구조물을 철거할 테니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그 사업을 추진해봐라.' 해갖고 동의를 해서 저희가 그



것을 승낙받고, 오늘 심의가 결정이 되면 바로 철거를 할 겁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그게 허락이 안 뜨면 철골구조물은 그대로 보기 싫은 대로 있는 겁니까?

○ 담당 팀장(중구청)

글쎄요, 지금 건축주는 큰 필요성을 못 느끼는 구조물인데 약간 흉물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도 그렇고. 건축주는 뭐 철거의사는 있는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니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저거 통과돼서 계단이 만들어지면 철거한다 그러면 마치 지금 소유자에 어떤 혜택이 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거 빨리 필요 없는 흉물스러운 것은 철거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은 전혀 안 하고,

○ 담당 팀장(중구청)

그것은 다 사전에 정리해서 공증까지 받아놓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 000 위원

설치하면 예상되는 사용자가 대략적으로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 담당 팀장(중구청)

그 부분을 저희가,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작년에 설치했거든요. 저희가 계수기를 가지고 우리 직원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주·야간, 그다음에 공휴일 날 체크를 해봤는데요. 공휴일 같은 경우는 인근 인쇄소에 있는 직원들과 주민들하고 상당히 이용객이 많더라고요. 주간에는 8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무 중에. 그다음에 공휴일 같으면 더 많고요.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청장님이 한 번 조사를 해보라고 해서 저희가,



○ 000 위원

그러면 아까 인쇄소라고 하면 어떤 물건들 가지고 다녀요, 아니면 그냥 돈 쓰러 다닙니까?

○ 담당 팀장(중구청)

일단 엘리베이터는 필동어린이집이 있는데요. 노약자,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기존의 담장이 우리가 한옥마을을 하면서 설치했던 게 아니고 이 자리가 수방사 자리였었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에서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담장으로 둘러싸았던 공간이거든요. 지금 보기도 흉물스럽고 개방을 해서 산뜻하게 꾸미면 긍정적인 게 도출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배치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번에 계단 설치하는 위치가 기존 목조문화재 가옥들하고 제일 가까이 설치한다는 말씀이예요. 지금 거기 한옥들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 담당 팀장(중구청)

예. 바로 10m 인접해서 있는데요.

○ 000 위원

있는데, 제 얘기 들어봐요. 낮에 통행은 나도 별문제는 없는데, 밤에 예를 들어서 술 취한 사람이나 이상자가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거냐는 소리예요. 화재 예방대책이나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문화재 보존이.

○ 담당 팀장(중구청)

연결로를 한다고 해서 기존에 통행이 안 됐던 곳이 새로 유도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이 주변에 산책로가 다 조성이 됐습니다.

○ 000 위원

아니, 이번에 설치하는 위치가 목조문화재하고 제일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럼 밤늦게 술 취한 사람이나 이상자가 오면 화재 예방대책이나 그런 게



제일 위험하다는 소리죠.

○ 담당 팀장(중구청)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 000 위원

밤에는 그쪽만이라도 어떻게, 뭐 낮에만 이용한다든지 해야지, 24시간 개방해서 하면 그것은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거죠.

○ 담당 팀장(중구청)

그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고자 최근에 CCTV를 24시간,

○ 000 위원

CCTV 믿을 수가 없다니깐요. 사람이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CCTV는 설치하면 어디서 보는데요?

○ 담당 팀장(중구청)

상황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24시간 우리 공무원들이 숙직자들하고 같이 보고 있거든요.

○ 000 위원

근본적으로 대책이 안 된다는 거죠.

○ 000 위원

그 한옥마을을 24시간 개방하는 데에는 무슨 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데뿐만 아니고 한국의집에서 들어오는 정문 쪽이나 후문이나 지금 다 개방되어 있잖아요. 후문이라고 하는 데를 통해서 남산 넘어 가기도 하고 접근하기도 하고 하는데, 24시간 개방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조 한옥문화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담당 팀장(중구청)

지금 가장 주목적은 관광객이 뭐 춘절이나 날이 풀리면 많이 오는데요.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222/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000 위원

그러니까 관광객 오는 것은 주간에, 통상적으로 오는 시간에 사람이 몰리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한밤중이라든가 새벽이라든가 그 시간까지 오픈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는 말이죠.

○ 담당 팀장(중구청)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는 서애길이라고 관광객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기존의 관광객을 자유롭게 분산을 시켜서,

○ 000 위원

그러니까 관광객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 관광객들이 새벽 3~4시에 온다든가 한밤중인 12시에 온다든가 일몰 후에 온다든가 하는 것은 굉장히 희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문화재를 어떻게 지킬까 하는 것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 담당 팀장(중구청)

저희도 지금 문화재를 하는 담당 팀장이고요. 문화재에 대해서 누구보다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 직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어떤 해소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요. 지금 위원님들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 000 위원

아니, 그래서 24시간 개방하는 이유가 뭔가를 여쭙보는 거예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겠다고 하는 건 알겠고, 그리고 관광객 이외에 그분들이 오시지 않는 한가한 시간, 그다음에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압력이 쑥 빠져나가서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을 수 있는, '방치'라는 언어를 써서 대단히 죄송한데 어쨌든 주의가 많이 집중이 안 되는 그 시간까지를 개방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가 하는 거죠.

○ 담당(중구청)

위원님, 담당인데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한옥마을의 야간 치안문제라든가 보존관리 차원에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



데 다만 한옥마을 전체적으로 보면 정문이나 후문 24시간 개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 공간입니다. 김춘영 가옥 담장 바로 옆인데요. 연결로 구간이 여기 뚫리는 부분이고요. 정문이나 후문을 통해서 24시간 일반객들이 여기를 산책할 수 있는 코스로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결로를 24시간 개방했다고 해서 새롭게 이 문제가 돌출되는 것은 아니고요. 24시간 개방해서 정문이나 후문을 통해서 이 공간을 충분히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뭐 방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뭐...

○ 000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연결로 그런 데 조명이라든지 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 담당(중구청)

예. 그런 계획은 저희가,

○ 000 위원

계획은 있는데 어느 시기에, 말하자면 안전이라든가 그런 문제 가지고 저게 되어 있어요? 1년이나 2년 사이에? 산책로, 연결로 그런 데. 안전, 조명 뭐 그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 제 생각에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지역 주민이랑 서애마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급박하게 서두르는 감이 있어요. 저것은 어차피 여는 것도 뭐 다 같이 공원이란 자산을 쓰는 것은 동의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전체적인 게 안 보이고 당장 정해진 예산에 넘어가니까 빨리 통로를 해야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전체적인 취지는 알겠지만 그게 조금 설득이 필요한 것 같아요.

○ 담당(중구청)

저희가 부수적인 계획이 있었는데 오늘 발표 드리는 것은 근본적인 출입구 개설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속적인 시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예산을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급박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요.

○ 000 위원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222/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다 우리 녹음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 담당(중구청)

이쪽 말고 위쪽에 보시면 뒤편에 계단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신경을 쓰고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럼 거꾸로 지금 24시간 개방하는 게 어차피 이제 개방이 다 돼서 통행한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 자체가 문화재 위해요소예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관람시간을 전체적으로 좀 제한을 하고, 야간시간에는. 관람객이 많은 시간에는 저렇게 개방도 해서 활성화시키고 이러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예요. 그러니까 새벽은 몰라도 밤에는 위험하니까 전체적으로는 통제를 하고, 낮이나 관람객이 많은 시간에는 다양하게 개방을 해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게 더 문화재나 이용자를 위해서는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인데.

○ 000 위원

이 앞에 보여주셨던 조감도 비슷한 거 있었죠? 여기에 지금 'SITE'라고 되어 있는 것이 뚫리면서 문화재에 그냥 10m 인접해서 바로 사람들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게 없다면 승강기가 있고 한 저기는 그냥 정문에서부터 와서 순환로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잔디 숲 사이로 해서 가기 때문에 저게 그렇게 마음 크게 먹지 않으면 접근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SITE'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계단이 저기에 들어가면 바로 담장을 스치다시피 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 동선이 굉장히 쉽게 들어가고 기웃거리게 되고 거기에서 유발되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을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을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화해서 24시간 개방해서 주민들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화(化)하겠다고 하면 문화재 지역은 다시 또 펜스나 보호조치를 해서 거기는 일몰 후에는 못 들어가는 장치를 한다든가. 지금 저것은 되어 있죠? 감지기랑은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 담당(중구청)

예.

○ 000 위원

그거 가지고도 왕왕 뭐 오작동이 일어나면 다 꺼버리고. 현장 가보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저건 더더구나 여러 채가 밀집되어 있고. 이축해서 온 게 밀집되어 있는 거고 사람들 손이 많이 타는 데니까. 뭐 다른 지역은 24시간 개방한다 하더라도 저기는 접근을 한정적으로 못하게 제한 시간을 둔다든지 뭐 그런 게 없으면,

○ 담당(중구청)

운영시간에 대한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담당 팀장(중구청)

이 부분은 우리 도우미도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간대를 해서 통제를 하겠습니다.

○ 000 위원

몇 시부터 몇 시요?

○ 담당 팀장(중구청)

그것은 뭐, 24시간 지금 우리 그...

○ 000 위원

한 10시부터 8시까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담당 팀장(중구청)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저희가,

○ 000 위원

저도 도서관을 해봤는데, 도서관 공부하러 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반달리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하려면 그만큼 인적투자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책임을 우리가 다 져야 하



는데 나중에 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게 우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 담당 팀장(중구청)

저희도 지금 문화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문화재를 아끼고 보호하고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기간제 근로자를 10시 이후에는 이쪽에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고민해보고요. 그다음에 세콤 장치까지 추가해서 자동으로 감지되도록 그런 것을 한번 설치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 담당(중구청)

아까 CCTV 저희가 11월 달에 설치한 그 기능을 보면, 실시간으로 저희 구청에서 24시간 지하에서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구청 직원하고 경찰서와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 000 위원

CCTV는 전에 있어도 뭐 승례문이 있으니까 CCTV는 안 되고. 지금 아무튼 선생님들 의견은 출입시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 담당 팀장(중구청)

예.

○ 000 위원

계단에 개폐시설 같은 것을 해서 언제라도 제한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 담당(중구청)

예. 수동이든 자동이든 그것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결국 어떤 모양의 계단이 되었건 이것이 사유지에 세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222/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워지는 거죠?

○ 담당(중구청)

그렇습니다.

○ 000 위원

나중에 권리주장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 담당(중구청)

그것은 저희가 무상토지사용 협약서를 체결해서요.

○ 000 위원

그것은 현주인하고 한 거잖아요. 주인이 바뀌면?

○ 담당(중구청)

거기에 부기적으로 이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승계된다는 내용까지 다 저희가 부기를 해놨습니다.

○ 000 위원

그것은 법적인 게 안 되는데. 민법상 그건 안 돼요. 제가 변호사는 아닌데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 담당(중구청)

강요는 못하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000 위원

기부채납 하는 방식을 취하든가 뭐 해야지 되지 않나요?

○ 000 위원

그때 가서 철거하죠 뭐. 안 된다 그러면. (웃음)

○ 000 위원

그게 더 바람직하겠다. (웃음)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222/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000 위원

그게 예산의 낭비가 되니까.

○ 담당(중구청)

이것은 들은 얘기인데요. 뒤쪽에 보면 CJ 인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서 이 주변에 대한 건물을 좀 크게 확대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백상빌딩 자체도 CJ에서 매입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오고가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그 매입이 되면 CJ 건축허가 증축이 들어올 때 이 계단의 모양을 더 멋있게 만드는 것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리고 설계자한테 제가 잠깐만. 계단이죠. 전 처음부터 지난 위원회, 그 전에 심의할 때부터 얘기했는데, 원형계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용역관계자

원형계단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 000 위원

그러니까 설계자시니까. 사용을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 용역관계자

예, 있습니다.

○ 000 위원

어떠세요?

○ 용역관계자

좀 불편합니다.

○ 000 위원

좀 불편해요?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222/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용역관계자

그런데 제가 원형계단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긴 했지만,

○ 000 위원

공간이 안 나오나요?

○ 용역관계자

예. 그 문제 때문에. 뭐 이런 건 아예 얘기가 안 되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건물에 사실은 지하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해나가기가 힘들고, 여기에 주차가 한 대 있는데 이것도 여기다 한 대 마련을 해줘야 하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까지 제가 월권해서 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고요.

○ 000 위원

지금 제시한 것은 구조는 뭐예요?

○ 용역관계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봤습니다.

○ 000 위원

저게 높이가 얼마죠?

○ 용역관계자

6m 됩니다.

○ 000 위원

6m를 두 번 꺾어서. 2층 높이인데.

○ 용역관계자

이것은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초기 (안)입니다.



- 000 위원
잠깐만요. 그 밑에 평면도에서 계단 두 줄 있는 그것만 쓸 수 있는 대지
예요?
- 용역관계자
이게 사실 높이를 처음에는 6m인지 모르고 ‘한 4m 좀 넘으려나?’ 하고
초기에 계획했던 (안)이고요.
- 000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거기서 그 폭을,
- 용역관계자
아, 이 폭이요. 이게 지금 도로입니다. 막다른 도로 6m를 확보해야 하는.
이 후퇴된 선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 000 위원
그 선을 더 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 용역관계자
예.
- 000 위원
그 삼각형으로 나와 있는 데까지는 못 쓰나요? 여기까지.
- 용역관계자
여기는 가능합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주차 한 대를,
- 용역관계자
주차 한 대를 해줘야 돼서.



○ 000 위원

주차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 용역관계자

대안을 하나 마련했는데요. 이 (안)입니다. 이것은 두 번 꺾어서 올라가는. 높이를 반영해서 전에는 이런 이런 (안) 있고 저런, 솔직히 그림이었고요. 이것은 높이 반영하고 해서 이 하부에 주차가 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여기서부터 유입 인원을 빨아들여서 두 바퀴 돌아서 올라가는.

○ 000 위원

그렇게 하면 경사도는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 용역관계자

네. 맞습니다.

○ 000 위원

저게 현실적일 것 같네요.

○ 000 위원

저는 우려되는 게 원형계단으로 하면 발을 디딜 수가 없잖아요. 큰 가운데 그게 안 되고. 더군다나 여기에 이제 새벽에 노인들이 산보하러 가다가 넘어지고.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눈이 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돼요.

○ 용역관계자

전에 보셨던 것보다는 사실 크기는 큰 겁니다. 3m니까 이게 한 1.5m 정도 되니까요 바깥으로 가면 쓸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흔히 계획하는 게 1.2m, 1.8m짜리거든요. 이것은 3m 되니까 저도 나름 최대한 할 수 있는데까지 해서 특수제작해서 한다는 데 연락해서 그렇게 해서 계획을 했는데요. 사실 불편한 것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 000 위원

두 사람이 다녀요? 오르락내리락?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222/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용역관계자
이론상으로는 다닙니다. 실제로는 조금...
- 000 위원
누가 안에 있으려고 해요. 안에 있으면 좋아요.
- 000 위원
원형 이것으로 지금 제안을 하신 거죠? 오늘 안건으로는.
- 용역관계자
예.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 000 위원
원형을 고수하시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구청장님이 특별하게 원형을 사랑하신다거나.
- 담당 팀장(중구청)
그것은 아니고요. 이 주변이 낙후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이라도 예쁘게 꾸미고 싶어서,
- 000 위원
예쁜 것 중에 원형을 택했다.
- 담당 팀장(중구청)
예. 그다음에 최소한 기존의 담장을 안 건드리는 선에서 계획을 해오다 보니까 그렇게 원형계단으로 판단을...
- 000 위원
그러니까 예쁜 것으로 하자면 다른 대안이 나오면 또 그것을 택할 수도 있으신 거네요.
- 000 위원



두 개는 안 나와요? 오르락내리락 따로 따로 두 개 쌍으로.

○ 용역관계자

두 개를 놓을 수 있으면 아예 아까 처음에 했던 일자 계단을 넓게 해서...

○ 000 위원

담장을 좀 안으로 내면 안 되나? 꼭 담장을 사수해야 하는 게 있나? 해주려면.

○ 담당(중구청)

최대한 한옥마을의 지반 자체는 손을 안 대는 것을 기본으로 접근을 했고요. 지반을 건드렸을 때 한옥마을 김춘영 가옥에 대한 어떤 영향성이 대두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지금 검토가 들어갔던.

○ 000 위원

원형계단 제안하신 것으로 보면 철골인가요, 하여튼 철구조로 해서 하셨는데 이 구조를 가지고 아까 직선계단 몇 번 꺾는 것으로 해서. 아까 거기는 구조가 철근콘크리트라고 그러셨죠?

○ 용역관계자

예. 기본적으로는 철근콘크리트입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형태는 그것으로 하는데, 이 철골구조를 갖고. 나중에 주인이 바뀌어서 떼라 그러면 떼기도 쉽고. 아니면 또 예쁘게 치장을 하려고 하면 그것 가지고 요술을 부릴 수도 있는 거고. 조금 가볍게 가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 000 위원

6m가 꽤 높아요.

○ 000 위원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222/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2층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서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 000 위원
헛갈려요.

○ 000 위원
그것을 한 번에 가려고 하니까. 6m 높이를 원형계단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뭐 등산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은데.

○ 000 위원
그러면 여기에 엘리베이터는 혹시 생각 안 해보셨나요?

○ 000 위원
엘리베이터는 저 위에 있으니까.

○ 용역관계자
거리는 있지만 그쪽에 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도 생각은 해봤었는데요. 제시는 했었는데 좀 이중적인 그게 있다고 해서요.

○ 000 위원
엘리베이터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 담당(중구청)
공간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한옥마을 부지를 침범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물 자체가 이제,

○ 000 위원
엘리베이터가 오히려 더 작지 않아요, 박스가?

○ 담당(중구청)
아, 엘리베이터만 설치하는 거요?

○ 담당 팀장(중구청)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222/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그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골고루 분산하는 목적으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1차 했던 기 엘리베이터는 주변에 노약자, 장애인들이 이용하라고 배려를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력으로 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계단 형태로 갔던 거거든요.

○ 000 위원

엘리베이터면 오히려 공간도 더 작아지고, 기왕에 하는 거 장애인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 가능하고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요? 굉장히 협소한 데도 계단을 돌아서 6m를,

○ 담당 팀장(중구청)

저희가 지금 엘리베이터를 한 1년간 유지를 해봤는데요. 유지·관리비도 별도로 들어가야 하고, 그다음에 요새는 저희가 원하는 엘리베이터가 들어올 수 없거든요. 조달청에서 받다 보니까, 저가의 엘리베이터를 받다 보니까 유지하는데 고장도 자주 나고요. 그런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 000 위원

화장실도 없으면 거기에서 방뇨도 해요. 노출된 엘리베이터는 관리상 되게 안 좋아요.

○ 000 위원

좌우간 계단을 하더라도 좋게 좀 해서 한번 노력을 하시죠.

○ 담당 팀장(중구청)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하여튼 이거 관계없이 철골 그거 빨리 정리를 하세요.

○ 000 위원

저것은 현상변경 심의사항 아닌가요?



○ 담당(중구청)

저것은 일단 불법구조물이었고 그 부분은 단속부서에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도록,

○ 000 위원

그러니까 불법인데 당장이라도 철거하라고 강제집행하면 땅 내놓을 사람이 마음 변해서 그냥 심기 건드릴까봐 그런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 000 위원장

예. 됐습니다.

(설계사 등 3명 퇴장)

지금 현재 사진을 보니까 쓰레기 모아두고 엉망이네. 철골구조가 있으니까 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하고, 6m 되는 옹벽을 조경으로 처리하는 게 계단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그것을 구청에서 더 먼저 신경 써야 할 텐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어야 할 것 같은데.

○ 000 위원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출입시간 제한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하나는 디자인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두 가지 조건을 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디자인에 대한 것은 참 얘기하기가 어렵네요.

○ 000 위원

그런데 꽤 많은 인원수를 처리하는 데서 원형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좀 위험한 것으로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원형을 지양해서,

○ 000 위원

예. 원형을 지양하고 직선계단으로 해라, 이런 정도로.



- 000 위원
구배가 완만하게 나오는 범위 내에서.
- 000 위원
더군다나 술 먹은 사람들이 밤에 다닐 거란 말이에요. 100% 넘어지지.
- 000 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다른 데는 또 몰라도 여기만큼은 밤에는 차단시켜야 돼요. 목조문화재 바로 옆이고, 밤에 술 취한 사람이 이것은... CCTV도 소용이 없어요.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이것은 진짜 야간에는 통행을 제한해야 돼요.
- 000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죠. 통행시간.
- 000 위원
디자인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선계단, 꺾은 계단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 000 위원
직선은 지금 저거...
- 000 위원
저거 말고 아까 (안)이 하나 조정한 (안)이 있던데요.
- 000 위원
저거 말고 두 번 꺾는 게...
- 000 위원
몇 번 돌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삼각형 남는 데까지 하여튼



충분하게 다,

○ 000 위원

디자인이 지금 완전한 디자인이 안 됐습니다. 원형계단도 평면도 나온 도면하고 투시도 나온 것하고 달라요.

○ 000 위원

또 바닥이 철판이 돼서 눈 올 때는 굉장히 빨리 얼고 녹지도 않아요.

○ 000 위원

원형계단이에요. 예를 들면 좁아야 오히려 효율적이예요. 넓으면요 더 불편해. 양손으로 잡든가 뭐 이렇게 되어야지.

○ 000 위원

저는 넘어졌어요. 한 번 사고 났어요. 좁아지잖아요, 안쪽으로. 헛디덕서.

○ 000 위원

네. 그러니까 오다가 내려오는 사람과 헛갈리게 되면. 좌우간 저는 그것보다 통행시간 제한을 하는 거.

○ 000 위원장

그러면 조건부로 통과하되, 조건은 출입시간 조정. 조정이 이것도 어느 정도 해줘야지, 조정하면 뭐 심야 한 2시간 이걸 아닐 것 같고.

○ 000 위원

10시부터 닫으면 될까요? 아까 10시 말씀하셨던...

○ 000 위원

통행하는 사람이 지금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새벽 5시까지는 이제. 산보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민들 그거 한다고 치고. 오픈은 5시면 될 것 같은데요.

○ 000 위원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222/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달는 건?

○ 000 위원장

밤 10시.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 000 위원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문만 말하는 거예요?

○ 000 위원장

이 문이죠.

○ 000 위원

이 문을 일찍 달아야 돼요.

○ 000 위원장

더 일찍? 지금 관리는 중구에서 합니까?

○ 000 시문화재관리팀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이 문은 빨리 달아야 돼요. 이걸 밤에 열면 안 돼요.

○ 000 위원

나는 이것을 전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 000 위원

전체 개방시간을 제한하면 어떨까요?

○ 000 시문화재관리팀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에서 요청이 있어서 개방계획에 따라서 일반 계획을 한 거잖아요. 그 부분은 그러면 다시 또 전체적인 것이 논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222/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000 위원
전체적인 것은 더 의논하고, 이 문은 적어도 10시 전에는 달아야 돼요.
- 000 위원
이것만 한다 그러면 10시 전으로 해야 할 것 같네요.
- 000 위원장
한옥은 시간제한이 있죠? 한옥 있는 곳은. 그것도 24시간 개방이에요?
- 000 시문화재관리팀장
아니요.
- 000 위원
여기 답이 있어요? 전 잘 모르겠는데.
- 000 주무관
답이 있습니다.
- 000 위원
여기 답이 푸른 선 따라?
- 000 주무관
예.
- 000 위원
한옥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 000 위원
6시 정도 아니에요?
- 000 주무관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거기도 개폐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 000 위원
그러게. 기왕이면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다르게 하면 또 애매하고.
- 000 시문화재관리팀장
한옥 여는 시간과 닫는 시간을.
- 000 위원
예.
- 000 위원
그것은 좀 아닐 겁니다.
- 000 위원
거기 안에서 영업하지 않나요?
- 000 위원
너무 빨라요?
- 000 위원
예. 그건 너무 빨라요.
- 000 위원장
굉장히 빠를 걸요. 한옥은 뭐 한 6시서부터.
- 000 주무관
6시에 아마 닫을 겁니다.
- 000 위원
그렇게 일찍 닫아요?
- 000 위원
10시 정도로 하죠.



- 000 위원
10시부터 한 5시?
- 000 위원장
예. 10시부터 5시까지. 그다음에 거기에 보안등이나 이런 것도 다 갖추는 조건으로.
- 000 시문화재관리팀장
보안등은 우리 시설 안에 들어와서 하는 거잖아요.
- 000 위원장
아니, 그 계단 주변에.
- 000 시문화재관리팀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 000 위원
그러면 10시부터 5시까지 하고, 전체 개방시간도 권고 정도로 달아놓으면 어떨까 싶어요. 24시간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 000 위원
저는 그 전에 가봤는데 거기 지금 관리인원도 열악하더라고요. 면적이 넓은데 밤에 한 사람이 본다고 하는 것 같은데.
- 000 시문화재관리팀장
예. 숙직하면 한 사람이...
- 000 위원
그래. 한 사람이 그게, 면적은 넓고 실제 어려워요.
- 000 위원장
일본에 문화재가 있는 공원을 입구 찾느라고 30분 이상 돌아다닌 적이 한



두 번이 아닌데, 한 바퀴 도는데 20분이면 한 바퀴 돌 수 있잖아요. 옆에 있는데 그걸 이용하지 꼭 그렇게 바로 앞에 해야 한다는. 저는 혜택을 제일 볼 것이 바로 옆의 건물일 것 같아요. 점심도 그렇고 그 공원을, 그래서 뭔가 이게 입구를 내놓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지 않는가 하는 감을 현장 가보니까 조금.

○ 000 위원

당장 땅값 또 올라가겠지. 당장 땅값 올라가지 뭐.

○ 000 위원

구청장님 땅인가? (웃음)

○ 000 위원

그러게요. 시의원이나 구의원 그런 민원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주민들이 뭐 문화재를 아껴서 요구한 것보다도 일종의 자기들 편의상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시설 같은데.

○ 000 위원장

그러면 일단 조건부 통과로 하되, 통행시간 조정(10시~5시).

○ 000 위원

10시도 난 늦은 것 같아. 그 많은 사람들이 퇴근을 6시에 하잖아요. 그 뒤는 숙직자 하나 있는데, 여기에. 이 문은 낮에만 해야지, 밤에는 이게. 10시도 너무 늦어.

○ 000 위원장

늦습니까? 그러면 8시?

○ 000 위원

늦어요. 늦다니깐요.

○ 000 위원

그것은 너무 좀. 어차피 길이 있는데,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 000 위원장
저녁 먹고 산책하는 주민들 많을 거 같은데.
- 000 위원
만들어놓고 민원이 더 많겠네.
- 000 위원
그러니까 한 10시 정도로.
- 000 위원
제가 덕수궁 소장 6년 했는데요. 신문에 안 나서 그렇지 실제 불 지른 일도 여러 번 있었어요. 이게 위험해요. 정말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분수대 물개 그것도 막 망치로 때리고. 순식간에. 우리 덕수궁 직원이 100명이 넘어요. 그거 못 붙들어요. 그런데 밤에 한 명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 000 위원
그러니까 전체 관람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문 하나 이거 막기는 참 쉽지 않아요.
- 000 위원
바로 목조건물 옆에다가 문을 낸다는 게. 순식간이라니까.
- 000 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을 한번 보시고 혹시 뭔가 훼손이 된다 그러면 한 6시쯤 부터 그냥 아예,
- 000 위원
된 것을 또 할 때는 늦다니깐요. 개선되는 것을 어떻게 해.
- 000 위원
훼손이 된다면. 개선이 아니고.



○ 000 위원

그래서 이 문은 어찌되었건 다른 출입문과 다르게 임시적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쓰는 문이다, 이것을 처음부터 강하게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10시 이렇게 하면 이미 일반적인 문이 돼버려서 오히려 나머지 시간까지를 다 그거 할 것 같으니까 저도 조금 더 강하게 제한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000 위원

저녁 산책하면 8시 정도까지는.

○ 000 위원

저녁 먹고 나면 8시인데.

○ 000 위원

이쪽 한옥들에서 영업을 뭘 하던가요?

○ 000 시문화재관리팀장

영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 000 위원

한옥은 아니고 옆에 여러 시설 있었잖아요. 찻집 같은 거.

○ 000 위원

낮에는 합니다.

○ 000 위원

찻집 같은 게 있던데.

○ 000 위원

그 영업을 몇 시에 끝나죠?

○ 000 위원



다 6시 이전에 끝나겠죠. 입구에서 문을 닫으니까.

○ 000 위원

뭐 그즈음 맞춰서.

○ 000 위원

시간은 정하지 말고 일단 야간은.

○ 000 위원장

그다음에 계단 형태는 아까 원형계단이 아닌 저것을 3단으로 하든, 지금 2단으로 되어 있는데.

○ 000 위원

안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하여 새로운 방안을 한번.

○ 000 주무관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저쪽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서로 갈등이 발생해서.

○ 000 위원

꺾은 계단이겠네. 직선 꺾은 계단 정도 되겠네.

○ 000 위원

직선 꺾은 계단으로 하시죠. 원형계단을 지양하고.

○ 000 위원장

원형계단 지양. 조건부 하면 심의는 안 올라오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건 올라오죠?

○ 000 주무관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사항을 한 번 다시 하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건부 통과이지만 그 (안)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해서 디자인 안건을 다시 한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222/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번 하자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대개 조건부 통과면 다시 상정하지는 않죠. 실무 부서에서 조건 확인을 하죠.

○ 000 위원장

조건 결정된 (안)은 제출하라고 해야죠.

○ 000 시문화재관리팀장

그것은 받는데, 그것을 위원님들께 우리가 보고를 드려서 하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000 위원장

보고를 해야죠.

○ 000 위원

아니면 제일 가까이 계시는 조 위원님하고 몇 분이 자문을 좀 해주시는 것으로.

○ 000 주무관

위원님들 두 분이 자문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 000 위원

그렇게 하시죠, 디자인은.

○ 000 위원

심심하면 공사할 때 내려가서 보시고. (웃음)

○ 000 위원

디자인 설계는 조 교수님 자문으로.

○ 000 주무관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222/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그러면 정리하면 조건부 통과고 출입시간을 조정하되 새벽 5시에서 10시 까지 하고.

○ 000 위원

10시 늦다니깐요.

○ 000 위원

8시.

○ 000 위원

일몰로. 일몰시간으로 맞추는 게 제일 합당해요.

○ 000 위원

네. 그게 제일 합당하네요.

○ 000 주무관

그러면 출입시간은 일몰시간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 000 위원

그러면 뭐 flexible 하니까, 겨울이랑 여름이랑.

○ 000 주무관

그다음에 보안등 등 안전시설,

○ 000 위원장

및 원형 지양.

○ 000 주무관

원형계단을 지양하고 직선계단으로 할 것. 그다음에 디자인 (안)에 대해서는 조정식 위원님 자문 받아서.

○ 000 위원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222/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000 위원장

지도받을 것.

○ 000 위원

직선계단에서 기울기가, 물매가 안전하게 나오는 것으로.

○ 000 위원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웃음)

(용역관계자 등 2명 입장)

○ 담당(도봉구청)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 문화체육과 000이라고 합니다.

도봉서원 보존정비를 위한 추가 발굴조사 건으로 해서 심의 관련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시·발굴 조사를 포함해서 4,464.3m²를 발굴조사 했고요. 발굴조사를 보시면 유구배치도랑 스캔한 사진을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이 층 자체가 고려시대 층위하고 신라시대까지 내려가는 층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작년에 발굴조사 했을 때 도봉서원 터 내에서 발견된 영국사 혜거국사비고요. 예전에는 탁본으로만 전해졌던 건데 현재 실물이 발견된 유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탁본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2012년도 발굴조사 때 발견된 유물인데 이게 지금 청동불구이고요. 안에 각인된 것을 보면 '도봉사'라는 명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동불구 내에 새겨진 글씨체이고요. 이게 2012년도 때 발견된 비편이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연구를 해본 결과 돌에 새겨진 석경하고 천자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천자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발견된 유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추가조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이쪽 이 부분을 추가 발굴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추가 발굴조사를 하려는 이유가 도봉서원을 복원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그 강당의 위치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기단 부분에서 연결된 부분이 저희가 강당으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222/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서 추가 발굴조사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안사항을 다 설명 드렸습니다.

○ 000 위원

유물들이 나온 자리는 어디예요?

○ 담당(도봉구청)

5호 건물지 쪽에서 청동불구가 나왔고요.

○ 용역관계자

청동불구는 이쪽 5호 건물지 내에서 확인이 됐고요. 헤거국사비는 4호 건물지 남쪽 경계 쪽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석경이라든지 석각 비편들은 이런 건물지라든지 폐와무지라든지 그런 산층 이런 곳에서 산발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 000 위원

그게 대개 무슨 지층에서, 문화층에서 나왔어요? 문화층 몇 개가 나와요?

○ 용역관계자

지금 현재 확인되고 있는 문화층은 통일신라에서 고려 초로 볼 수 있는 여기 층, 그다음에 고려시대 층, 조선시대 전기,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유구가 확인되고 있는 조선시대 전기 층이 2개로 볼 수도 있고 하나로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 층. 그리고 도봉서원 층이라고 해야 하는데, 도봉서원 층은 생각보다 미약한 편이고요. 그래서 적어도 4개의 층 정도 확인은 했습니다.

○ 000 위원

지금 추가로 발굴하고자 하는 자리는 어디예요?

○ 용역관계자

여기에서 보시면 8-2호라고 하는 이 건물지 기단이 있는 거, 그리고 12호 건물지로 추정하고 있는 이 두 개의 건물지 기단이 지금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과 중정의 일부 구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222/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000 위원

1호, 2호, 3호 붙여놓은 것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도봉서원 문화층을 기준으로 붙여놓은 말이에요?

○ 용역관계자

이것은 2012년도에 조사했을 때 붙인 유구번호를 이번 연도에 또 다르게 하면 해석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 유구번호를 그대로 가져갔고요. 여기에서 1호 건물지는 최상층이어서 지금 현재는 제거된 상태입니다. 2호 건물지도 일부가 거의 다 제거된 상태이고요. 현재는 5호 건물지의 주하부가 되는 상황입니다.

○ 000 위원

5호가 주 건물이죠? 극락전이었다가 대성전으로 바뀐.

○ 용역관계자

예.

○ 000 위원

그 뒤쪽의 경계는 확인이 됐나요?

○ 용역관계자

뒤쪽으로도 저희가 시굴조사를 통해서 이쪽 건물지가 계속되는 배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지형적으로 봐서는 이쪽에 지금 견치석 석축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쪽을 경계로 해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배면으로까지의 경계로 추정이 돼서 이번 추가조사는 이쪽 부분에 대한 추가조사 신청인데요. 추후로는 이쪽 배면에 대해서도 추가조사 계획을,

○ 000 위원

개인 땅인데 주인이 안 나타난다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 용역관계자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222/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그 부분은 확인을 했는데, 일부 산주가 아직 토지사용허가를 연장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000 위원

발굴한 다음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 담당(도봉구청)

저희가 우선 올해 발굴지를 추가로 조사하고, 향후에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획하는 부분이 배면 석축 윗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7호, 10호 건물지 오른편 쪽까지 추가적으로 발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000 위원

나무 있는 데는 못하는 거죠?

○ 담당(도봉구청)

보호소 쪽은 지금 계속 협의를 봐야 할 부분이라서요. 그 부분까지 추가 발굴 다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지금 도봉서원과 영국사의 층위를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국가사적까지 승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원래 계획이 도봉서원을 다시 짓는 것으로 시작을 한 건데, 그러면 새 건물 올리는 것은 일단은 접는... 조심스럽겠죠?

○ 담당(도봉구청)

서원 측에다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발굴지역 내에서는 서원 건립 좀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공을 하시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요. 서원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대체 부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000 위원

‘서원 측’이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222/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담당(도봉구청)
사단법인 도봉서원이라고요.
- 000 위원
사단법인이요? 재단법인도 아니고 사단법인이 있다고요?
- 담당(도봉구청)
예.
- 000 위원
그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 담당(도봉구청)
 저희가 추가 조사할 지역이 지금 이 중심 부분에 512번지라고 해서 서원
측에서 지금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000 위원
원래 있었죠, 뭐. 허름하게.
- 000 위원
없어진 지 오래됐지. 중간에 그러니까 생긴 거지.
- 000 위원
이거 발굴 전에 허름하게 지어놓은 게 하나 있었다고.
- 000 위원
지금 그럼 발굴조사업체는 어떻게, 아직...
- 담당(도봉구청)
발굴조사업체는 지방계약법상 문화재 발굴조사 연속성을 위해서 수의계약
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맡겼던 불교문화재단에 계
속 맡길 생각입니다.



○ 000 위원

지금 발굴비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 담당(도봉구청)

발굴비는 서울시 보조금으로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000 주무관

올해 5억 원 책정을 했습니다.

○ 000 위원

여기에 중요한 유물이 많이 나오고 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또 유물이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실제 여기 자문을 보면, 이제 전문가들을 좀 더 보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담당(도봉구청)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전문가 분들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아니, 불교문화재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조금 정치적으로 곤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봉서원 자리인데.

○ 담당(도봉구청)

‘불교’자가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 000 위원

오해가 아니라 그렇지 뭐 참. 오해가 아니라.

○ 담당(도봉구청)

저희가 작년도 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먼저 냈었습니다. 그 때 총 두 번의 유찰이 생겼고요. 그 결과 저희가 수소문한 끝에 한백문화재연구원에서 맨 처음에 1차 때 한 군데가 신청을 했었고. 2차 때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신청을 했었던 건데, 양쪽 기관에 유선상으로 전화했을 때 한백 쪽에서는 거부 의사를 밝혔고요. 불교문화재연구소 쪽에서 하겠다고

한국 컴퓨터 속기 사무소

A18/K0222/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나서서 그때 수의계약으로 들어간 겁니다.

○ 000 위원

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 담당(도봉구청)

아무래도 한백 쪽에서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도봉서원 터에 대한 조사인데 복원을 전제로 발굴조사를 한 거였는데 발굴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든 상황이,

○ 000 위원

현재 기 발굴된 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 담당(도봉구청)

현재 임시 복토해놓은 상태입니다.

○ 000 위원

서울시문화재 쪽에서는 기념물분과에서 일단은 주관을 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기념물분과의 위원님들 구성이 어떻게, 매장하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계신가요? 보니까 2월 9일 날 먼저 주로 보는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이 된 것을 저희한테 와서 사후 설명을 하시는 상황인데.

○ 000 주무관

자문입니다.

○ 000 위원

어쨌든. 자문인데 그쪽 분과가 주도권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쪽에서 쪽 나가시는데 거기 위원님들 구성이 건축이라든지. 식견이 계신 분들이 포진해계시긴 하겠지만.

○ 000 주무관

저희 분과가 건축 전체적으로 여기 계시고요. 기념물분과에 건축 전공을 하진 않으셨지만 건축 관련된 부분에 한 분인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222/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다.

○ 000 위원

그리고 주로 전공이나 분야가 어떤 분들이 계세요?

○ 000 주무관

기념물 관련된 성곽도 게시고요. 지금 정확하게 다 기억을...

○ 000 시문화재관리팀장

그 파일을 잠깐 가져와서 설명을 조금.

○ 000 위원

발굴은 물론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오래 존치하다 보니, 발굴 후에. 복토를 임시복토라는 것을 하기는 하는데 워낙에 조밀하게 복토가 안 되다 보니까 땅속에서 다 움직여요. 나중에 파보면 돌들이 엉뚱한데 가 있고 그러면서 그게 제일 문제예요. 전모를 파악하려면 전체 발굴이 필요하기는 하나 기 발굴에 대한 완벽한 보존조치를 같이 해가면서 발굴을 진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왕에 덮어놨다고 하니까 모르겠지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복토를 어떤 식으로 어떤 구획을 발굴하고 또 덮어나가고 할지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서 단계별로 시행하는 게 발굴도 낫다고 봐요. 이 부분도 면적이 꽤 되잖아요. 여기가 또 지형이 낮기 때문에 유실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좀 플러스되면서 발굴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 용역관계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발굴에서, 그러니까 2012년 조사에서 이쪽이 유구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층 추가조사를 계획하면서 최소 범위로 해서 하층을 확인하자 해서 조사가 시작됐었는데, 결국은 그런 쪽에서 건물지 기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전모 파악을 일단은 해야 하는데 이게 점 단위의 발굴이 되다 보니까 전모를 파악할 수 없고, 그 속에서 결국은 놓치는 층위들이 서로 연관성을 갖지 못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니 결국 저희가 이번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게 도봉서원, 또 영국사의 최대 중심 영역의 경계가 서쪽 부분의 담장 두



개를 확인하게 됐고요. 북쪽에는 배면에 석축이라든지 지형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됐고, 동쪽으로는 동쪽 석축이 쪽 해서 남쪽까지 내려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쪽은 무대라든지 이런 계곡까지 있는 것들을 확인해서 중심영역을 정확하게 경계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여기를 조사할 때 전체를 보지 않으면 전체가 다 오픈돼서 유기적으로 고고학적인 조사를 할 수 없으니 이번 조사에서 전체 복토를 하고 나머지를 또 여기만 열어서 보면 역시 반반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차제에는 여기를 임시복토해서. 지금 보온덮개를 이중, 삼중으로 했고요. 그 위에 다시 방수포로 다 덮었고 그 사이사이에는 또 흙으로 가볍게 메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걷어내면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인 것을 중간에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쪽 조사를 하면서 전체 복토를 제거해서 전체적인 층위를 보고 나면, 중심영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복토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 나머지 추가 지역에 대해서는 층위적인 연관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복토계획에 보강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000 위원

복토를 예산을 좀 더 줘야 된다는 얘기죠, 시에서는. 왜냐면 이게 판촉하듯이 점진적으로 다지면서 유물이 안 움직이게 해 올라와야 하는데, 확보어버리면 끝나잖아요. 덮개 덮어버리고. 그 안에서 다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파보면 엉뚱한 데 가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예산도 그런 공법까지 같이 고려해서 집행을 해야지 유적이 보존된다는 뜻이니까 그런 계획을 좀 병행해서 해달라는 뜻이죠.

○ 담당(도봉구청)

예. 알겠습니다.

○ 000 위원장

이제는 그 제목이 좀 보완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영국사 터라는 게 지금 중심이 되고 있다면 부제를 하나 붙이든지. ‘도봉서원 및 영국사 터 보존정비를 위한’ 이렇게 프로젝트 명칭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이건 그냥 허언인데. 계속 도봉서원, 도봉서원 하면서 내용은 도봉서원에 관련된 것은 아주 적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 담당(도봉구청)

현재까지는 지금 발굴된 내용을 봤을 때는 도봉서원이라는 근거가 명확하게 나온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추가 조사지역을 발굴하다 보면 강당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도봉서원의 강당 터가 제대로 확인이 된다 그러면 복원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어느 정도 학술적 근거가,

○ 000 위원장

그러니까 다음에 사적으로 지정한다 그러면 제목이 '영국사 터'라는 게 먼저 앞에 나올 것 아니겠어요?

○ 담당(도봉구청)

예.

○ 000 위원장

하여튼 그런 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 000 위원

서울시 기념물분과가 되었던 서울시문화재 위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 하거나 한 일이 있나요?

○ 용역관계자

발굴조사 중에 자문위원으로 서울시 기념물분과에서 오셨었습니다.

○ 000 위원

누가 오셨어요?

○ 용역관계자

자문위원 중에서 김길식 교수님이 참석을 하셨었고요. 그 전에 전임으로 김성구 위원님이라든지 이경미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 000 위원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222/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이경미 선생은 기념물분과위원이 아니던데. 기념물분과가 지금 주심이라면서요. 그런데 기념물분과위원은 누가 했어요, 저기서?

○ 용역관계자

기념물분과에는 김길식 선생님이 이 조사 당시에는 기념물분과위원이셨고요. 김성구 전임 관장님은 전임이셨고요.

○ 000 위원

그러면 3, 4차 때는 해당 되는 분이 없고?

○ 용역관계자

예. 3차 때는 도봉산 영국사 해거국사비가 확인되면서 그 비문과 관련돼서 조금 더 그것들을 해서 스님 중에서도,

○ 000 위원

아니,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타고 일을 할 거면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 누군가가 현장 지도도 하고 자문도 하고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일은 저쪽 사람들이랑 하고, 여기 와서는 저기만 하고. 지금 이렇게 되는 꼴이 되잖아요.

○ 용역관계자

예. 그것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중요한 유물이 아주 많이 나왔는데, 지도하는 분들이 좀 보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들더라고요.

○ 000 위원

고경 스님은 송광사에 계신 고경 스님 말씀하시나요?

○ 용역관계자

예. 맞습니다.



○ 000 위원

그러다가 나중에 저쪽에서 크게 덤벼요. 정말로 이렇게 하시면. 잘 이렇게 갖춰서 가져야지, 균형 있게 갖춰 가져야지.

○ 용역관계자

추가로 정각 스님은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 위원이셔서 그때 매장문화재 분과도 모시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겨우 모셨었고요. 서울시 분과도 최대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와 협의를 해서.

○ 000 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도봉구청 관계자 2명 퇴장)

다른 의견 없죠?

○ 000 위원

네. 자문인데요 뭐.

○ 000 위원

건축분과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은데.

○ 000 위원

그것은 잘 해야 돼요. 이게 또 불교계랑 서원 저기랑의 그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서,

○ 000 위원

지금은 제목 붙이는 것도 조심스럽고. (웃음)

○ 000 위원

그렇죠. 지금은 일을 그냥 효율적으로 편하게 가기 위해서 한쪽으로 몰려서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시청에서 조금 저기를 해줘야 돼요. 구청에서는 뭐 빨리 가고 싶지. 일을 빨리 가는 게 더 좋지.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그런데 그것을 시청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물어보고 가라, 이렇게 좀 관리를 해줘야지 나중에라도.

○ 000 위원

최근에 맡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처음 촉발했을 때는 도봉서원에 유림 계신 분들이 짐 싸들고 위원님들 찾아다니시고 투서하시고 뭐 말도 못했어요. 영국사 불교 쪽에 또 굉장히 미묘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를 잘 하셔서.

○ 000 시문화재관리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 000 주무관

그럼 자문 의견은 어떻게, 위원님들 코멘트는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 000 위원

전문가 더 보강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나올 것 같아요.

○ 000 위원

저게 건축 유적이니까 발굴할 때는 건축분야 전문가가 자문 등 이런 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발굴도 좋지만 정비계획을 동시에 진행해서 유적에 훼손이 없도록 하는 것 그런 것도 필요하죠.

○ 000 위원

그리고 복토랑 그 말씀 좀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저쪽에서 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000 위원

복토가 지금은 다 되어 있고 또 지금 발굴하는 거라서 당장 시행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유적 보존을 위해서 정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되 복토를 할 경우에는 판축 등의 기법으로 유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함이 필요함. 뭐 이 정도로.



○ 000 위원

그리고 관련된 분야 고루 자문이나 설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배를 잘 하라고.

○ 000 위원

복토가 아니라 원형 복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 발굴 안 하면. 이런 것을 복토라고 하면 흠만 쌓는 거지.

○ 000 위원

이게 확 부어버리면 끝나더라고. 그러면 다 망가지지. 차 들어와서 그냥 확 부어버리면 끝나니까. 하나하나 판촉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 000 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은 지방서나 이런 데 다 있지 않겠어요?

○ 000 위원

없어요.

○ 000 위원장

없어요? 그게 없다면... (웃음)

○ 000 위원

이쪽은 그게 없어요, 발굴 쪽은.

○ 000 위원

복토가 지형 원형복구. 본래 하게 되어 있어요.

○ 000 위원

아무튼 유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그런 기술로, 기법으로 유물 보호층을 한 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방법이 없지 뭐. 어떻게 할 거야.



○ 000 위원

발굴하는 분들이 발굴할 때는 하나 찾으려고 막 하는데, 실제 끝나고 나면 끝이에요.

○ 000 위원

예. 뒷수습을 안 해요, 뒷수습을.

○ 000 위원

뒤에 가보면 진짜 그것은 유물을 훼손하는 작업이 많아요.

○ 000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발굴하지 말아야 돼요. (웃음) 아니, 발굴은 막 해놓고 거기다 복원하겠다 그러면, 너네들 원형도 모르면서 무슨 복원을 해. 우리도 연습이 필요하지. 자기네들 막 뒤져서 다. 거기에서 지식이 쌓인 건데, 발굴 많이 해서. 우리도 많이 해봐야 지식이 쌓이지.

○ 000 위원장

예. 그러면 오늘만 오전이고, 다음 일정은...

○ 000 주무관

3월 22일입니다. 오후 2시로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2차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 오전 11시 47분)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222/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